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상담실 백종훈 차장

상품권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들의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접대의 용도나 복리후생 등의 차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있어서의 세무상 주의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의 적격증빙 구비방법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음 등과 같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할 수가 없다.

즉,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래는 지출증빙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증빙불비가 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제도46012-11220,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해야 함

현행 법인세법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법정지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즉,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거래에서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단계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권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상품권을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 접대비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그 사용시점에 법적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상품권 자체를 접대용도로 거래처 등에 직접 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품권 자체를 접대용도로 직접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구입시점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한다.

상품권은 사금융업체에 할인·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현금대용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분산 처리하는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 및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서면2팀-2664, 2006.1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2009.1.1. 이후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